

# 예고된 불황을 간과하지 말자

□ 정리/김동진 기자

**갑**술년 한해를 보내며 돌아본 국내 양계산업은 수입개방에 직면해 있으면서 혹독한 폭염피해를 겪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양계업은 '60년 이후 타축 산업에 비해 상당한 위축을 가져왔는데 '60~'70년대 전체 배합사료생산의 90%를 차지하던 양계업이 '80년대에는 36%, '90년대('90~'93)에 들어 14,078천톤 생산으로 29.6%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중 산란사료는 20%를 차지하고 있어 양계분야에서는 60%로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란가격을 놓고 볼때 '92, '93년 연평균 특란가격이 각각

59원, 53원을 기록한데 반해 올 11월까지 평균 특란가격은 66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느해 못지 않게 고통을 느낀 한해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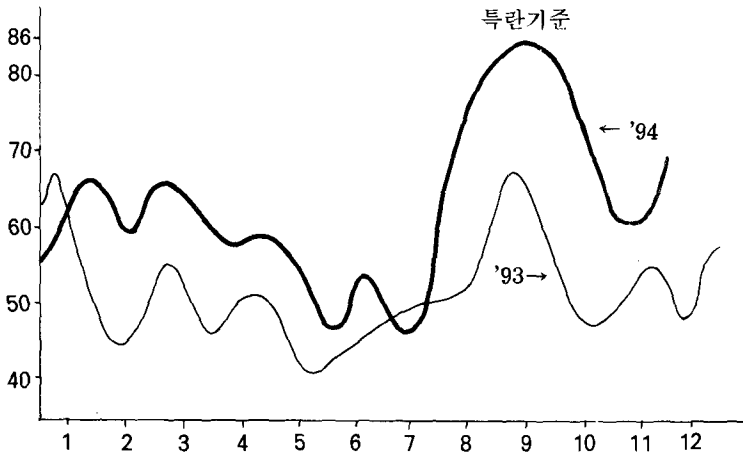
올해 계란생산 잠정치는 87억개로 극심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93년 계란 생산실적은 7,967백만개로 '92년 7,781백만개에 비해 증가되어 1인당 181개를 소비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 증가를 소비량이 따라주지 않아 조금만 과잉생산될 경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인해 생산자들은 계란판매에 의한 소득에만 관심을 보

여 사양관리는 물론 계분과 노계판매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성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채란업계에 변화를 가져온 몇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난가고시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계란유통의 변화, 때아닌 폭염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피해, 소비촉진 확대와 위생적인 계란유통 정착을 위한 일회용 난좌 사용, 연중 끊임없이 나타난 전례없던 가금티푸스 발병으로 인한 피해, 최근들어 환기방식(무창계사)의 모순점이 드러나 방식자체를 변경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계란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93년 위축됐던 채란업이 '94년에는 가격



(그림1) 계란가격 추이

선이 높아 다소나마 회복됨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가격등락 폭이 심하게 나타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93년 27원에 비해 '94년에는 38원의 큰 폭을 보여주고 있다.

'93년에 비해 올 1/4분기 계란생산잠재력이 18.2%증가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것과 관련해 과잉생산으로 일부농가에서는 계란이 체화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다소 계란소비가 증가되고 체화량이 감소하면서 회복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93년 이후 계속되는 난가의 등락으로 2중3중의 시세가 형성됨은 물론 후장기 제도가 여전히 이루어져 난가 고시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며 상인들에 의해 시장이 이끌

러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은 예로 지난 5월 난가하락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와 아울러 노계도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란 한개에 40원선이 무너진 '9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농장수취가격이 50원선을 기록했으나 실제거래된 가격은 이보다 낮은 45원 내외였으며 신선도에 따라 40원선마저 무너진 지역이 있어 계란가격고시의 큰 난점을 보여왔다.

이에 생산자들은 노계도태가 아닌 강제환우로 추후 과잉의 불씨를 남기며 일시적인 미봉책을 구하기에 급급했다.

심각성을 인식한 관련업계(협회, 생산자, 상인, 현대양계 등)에서는 5월 25일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문란해진 계란유통의 개선책으로 6월 1일부터 자동응답기 폐쇄는 물론 현대양계에서는 도매시세고시를 중단하고 생산자가격을 협회와 동일가격으로 고시하며 상인들은 고시가를 엄수하고 자유로운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화를 적극 꾀하고 나섰다.

생산자들에게 또하나의 고통은 7월들어 일시적인 이상기온으로 치부했던 날씨가 35°C 이상의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율 저하, 폐사 속출, 난중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던 농가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었다.

그로 인해 7월 27일부터 무려 한달 사이에 38원이 인상된 86원을 기록했는데 폭염피해를 보충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7일간 지속되던 상승세는 9월 30일 특란을 시작으로 반전되어 1달사이에 25원이 폭락하였는데 그 이유를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계란값이 큰폭 오르면서 소비자가격도 그이상으로 뛰어올라 대폭 소비가 둔화되

표 1. 산란사료 생산실적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93	초 생 추	4,723	5,264	6,905	7,310	6,340	4,915	4,494	4,987	6,075	6,164	5,601	5,691
중 추		15,516	13,578	15,481	16,368	17,495	15,388	13,188	12,027	13,300	15,503	18,037	19,009	184,890
대 추		9,895	9,068	8,871	8,822	10,578	13,273	11,946	9,106	7,983	9,676	9,439	9,543	118,200
계		30,140	27,910	31,257	32,500	34,413	33,576	29,628	26,120	27,358	31,343	33,077	34,243	371,565
산란사료		139,242	131,553	146,942	142,254	138,255	128,313	133,412	130,819	139,023	128,515	135,462	150,215	1,644,005
'94	초 생 추	4,303	4,622	6,540	7,437	5,926	5,333	4,713	5,428	5,794	5,983			
	중 추	14,906	12,948	13,487	14,757	17,775	17,542	13,784	13,450	13,852	15,812			
	대 추	7,227	5,630	5,176	5,795	8,147	9,978	8,187	6,953	6,260	6,679			
	계	26,436	23,200	25,203	27,989	31,848	32,853	26,684	25,831	25,906	28,474			
	산란사료	145,898	137,650	151,081	145,985	142,354	135,440	114,609	129,121	138,893	140,956			

었고, 둘째, 높은 값의 지속으로 고주령 계군까지 도태치를 낮고 생산에 가담시켜 큰알 중심으로 과잉생산이 되었으며, 셋째, 지난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로 다수의 산란계가 폐사될때 강제환우 시켰던 계군들이 생산에 적극 가담되었기 때 문으로 평가했다.

8월들어 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자 계란보관상에도 문제점이 노출돼 모 언론매체를 통해 플라스틱 난좌에 담겨진 비위생적인 계란이 상점에 쌓여있는 것이 노출되면서 소비 위축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생산자들과 상인연합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7월 21일부터 소비촉진 확대와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이 정착될 수 있도

록 일회용 종이난좌만을 사용키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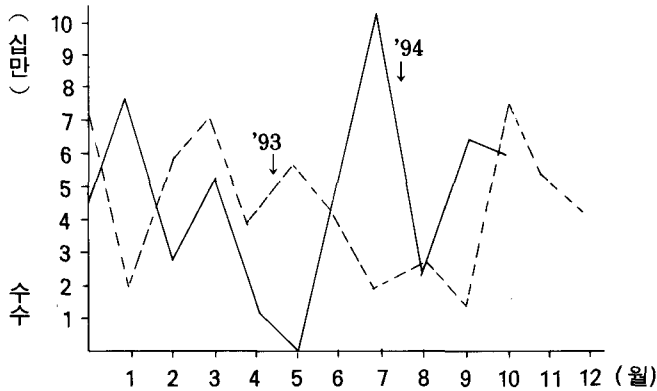
난좌는 계란 1개당 1원꼴로 그 대금은 고시가에 포함되어 소비자 부담으로 하였고 상인들은 농장에 들어갈 때 빈차로 들어가 종이난좌에 담겨진 계란을 수거해 오면 되는데 난좌의 공급과 사용한 난좌의 처리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생산자 특히, 상인들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이 정착되기에는 어려움이 커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실천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연중 질병문제는 꾸준히 사양가를 괴롭혔는데 특히 추백리와 거의 유사한 가금티푸스가 '92년 가을 경기 및 경남지역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검색

된 이후 올해는 더욱 심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병, 산란저하는 물론 다수의 폐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백신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채란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경각심을 주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으로 사료수송 및 계란유통에 의한 발생농장으로 부터의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함을 관계자들은 권장하지만 방역관리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인 국내실정으로서 이 병이 전국에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림2는 산란 P.S입식현황을 나타낸 자료인데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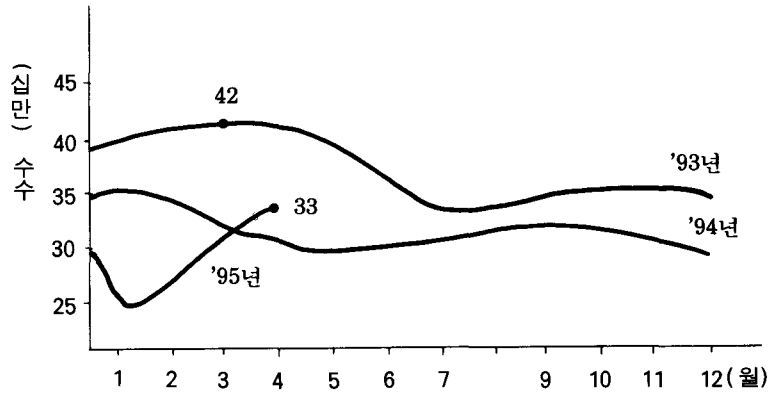


〈그림2〉 산란 P.S 입식현황

예고된 불황에  
대처키 위해 생산자들은  
과감한 노계도태는 물론  
계분의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돌려야...

에는 156,760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감소하였고 2/4 분기는 63,800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60%나 감소를 보였다. 이는 내년초 계란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올 3/4분기에 입식된 P.S물량이 232,995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 3배 이상의 많은 양이 입식되어 내년 중반 이후 난가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양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그림3)에서도 '95년 초에 잠시 줄어들다 4월 현재 3,305,045수로 점점 증가일로에 있어 생산에 적극 가담되는 8월 이후 난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생산비 절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이에 수반해 유통구조 개선뿐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 판매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자들은 계란가격에 연연치 말고 예고된 불황에 적극 대처키 위해 과감한 노계도

태 실시와 계분의 상품개발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